

정보라 호러 소설의 문화계보학적 재구성

- 『저주토끼』, 『아무도 모를 것이다』, 『죽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를 중심으로

홍덕구*

1. 서론
2. 정보라 호러의 원형 또는 기원(1): <전설의 고향>과 J-호러
3. 정보라 호러의 원형 또는 기원(2): 슬라브 동화민담과 동유럽 근현대사의 비극
4. 낯설게/무섭게 함으로써 무섭게/낯설게 하기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정보라의 초기, 중기 환상소설 중에서 호러의 문법을 취하고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문화계보학적 방법을 통해 그 대중 서사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1장에서는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로 『저주토끼』가 선정되었을 때 심사위원회가 밝힌 ‘미술적 리얼리즘과 호러, 과학소설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가’라는 정보라에 대한 규정이 이후의 연구 경향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보라 소설을 문화계보학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전설의 고향>으로 대표되는 K-호러와 ‘일본 괴담’으로 지칭되는 J-호러의 장르적 문법들이 정보라 호러의

* 국립군산대학교 초빙교원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살폈다. 3장에서는 동유럽 문학 연구자이자 번역가이기도 한 정보라의 이력에 주목하여, 슬라브 동화·민담과 동유럽 근현대사의 비극적 사건들이 정보라 소설에서 소외와 공포의 양식으로 전유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정보라가 스스로 호러의 창작적 원천이라고 밝힌 스티븐 킹과 빅토르 시클롭스키를 전유하여 정보라 호러가 무엇을 ‘낫살게’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공포들을 만들어 내는지를 살폈다.

정보라는 2026년 현재, 한국 문학/문화 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창작자이다. ‘사회비판적 호러’라든가 ‘데모하는 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듯 정보라 소설은 사회비판과 변혁이라는 목적성을 띤 효용적 양식으로 흔히 이해/오해된다. 그러나 2007년 데뷔 이후 <환상문학웹진 겨울>을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해 온 정보라의 초·중기 작품들을 살펴보면, 정보라 소설의 시작은 무서운 이야기, 기괴한 이야기가 주는 쾌(快)에 대한 매혹 그 자체였음을 알 수 있다. 정보라 호러가 제공하는 공포가 독자들에게 특수한 종류의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호러가 인접 장르와 착종되어 재생산됨으로써 생명력을 획득하는 하나의 방식을 보여준다.

(주제어: 정보라, <저주토끼>, <아무도 모를 것이다>, <죽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호러 소설, 마술적 리얼리즘)

1. 서론

2022년 2월, 부커상 심사위원회는 정보라의 『저주토끼』를 영역한 『Cursed Bunny』를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로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심사평을 밝혔다.

정보라 작가는 마술적 리얼리즘, 호러, 과학소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데, 장르의 틀을 뛰어넘는 단편 소설집을 선보인다. 한국 작가 정보라는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요소를 활용해 현대 사회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공포와 잔혹함을 조명한다. 안톤 허의 번역은 정보라의 문장이 공포에서 냉소적인 유머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식을 능숙하게 담아냈다.¹⁾

『저주토끼』가 마술적 리얼리즘, 호러, 과학소설의 장르적 경계를 넘나든다는 이 심사평은 적확하면서도 성기다.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문학전통으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로 대표되는 남미 문학의 계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후 그 의미가 확장되어 비서구 출신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이 보여주는 서구의 이성중심주의, 사실적 리얼리즘, 정치적 헤게모니에 대응하는 저항적 서사 계보로 분류되어 왔다.²⁾ 그런데 한국은 ‘비서구’임은 분명하지만 ‘글로벌 사우스’로 묶이기에 애매한, 후기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한 국가/지역이기도 하다. 물론 황석영이나 극작가 고선웅 등 마술적 리얼리즘을 창작 방법론으로 적극적으로 차용한 작가들이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주토끼』가 보여주는

1) 원문은 다음과 같다. Bora Chung presents a genre-defying collection of short stories, which blur the lines between magical realism, horror and science fiction. Korean author Bora Chung uses elements of the fantastic and surreal to address the very real horrors and cruelties of patriarchy and capitalism in modern society. Anton Hur's translation skilfully captures the way Chung's prose effortlessly glides from the terrifying to the wryly humorous. <https://thebookerprizes.com/the-booker-library/books/cursed-bunny>. (검색일: 2026.04.02.)

2) 박선주, 「상상력의 폐기: 마술적/리얼리즘의 계보와 캐런 테이 야마시타의 『오렌지 북회귀선』」, 『비교문학연구』 제42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 288쪽.

환상성을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로 지시하는 것은 ‘비서구권/비영어권=글로벌 사우스’라는 등식에 『저주토키』를 단순 대입한 결과가 될 것이다.

문제는 『저주토키』를 위시한 정보라 소설에 대한 한국 내 연구와 비평이 부커상 심사위원회의 논리와 워딩을 고민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소설 대상의 연구를 포함하더라도 정보라 소설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많지 않다.³⁾ 이는 정보라가 신춘문예나 문예지 신인상 같은 문학 제도를 통해 데뷔한 작가가 아니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장르의 틀을 뛰어넘는’ 정보라 소설의 특징 때문일 것이다.

정보라 소설을 다룬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윤장실·김용규는 『저주토키』를 ‘Science Fiction(과학소설)’이 아닌 ‘Speculative Fiction(사변소설)’으로서의 SF로 정의하며, “자본주의의 바깥을 상상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공포와 해학의 변증법을 토대로 세계에 대해 인식적 지도그리기를 수행함으로써 반주변부 소수문학이 갖는 미적 자율성 및 정치성을 구현하며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이 지니는 가치를 드러내보인다”⁴⁾라고 분석했다. 이는 부커상 심사위원회의 평가 마찬가지로 『저주토키』를 서구 문학 전통에 대항하는 반(半)주변부 소수 문학으로 위치시키려는 시도이다. 타당한 지적이지만 정보라 환상소설에 대한 충분한 해석은

3)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사이트에서 ‘김초엽’으로 검색한 결과 71편, ‘천선란’으로 검색한 결과 26편, ‘정세랑’으로 검색한 결과 19편의 학술논문이 검색된 반면, ‘정보라’ 검색어로는 5편의 학술논문만을 찾을 수 있었다(검색일: 2026.05.08.). 이는 김초엽, 천선란, 정세랑과 같은 여성 SF 작가들이 보여주는 여성 서사, 마이너리티 서사로서의 특성이 정보라 소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기 때문에 최신 연구 경향에서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 윤장실·김용규, 「세계문학의 다른 시간성을 찾아서-유럽중심적 시간성을 가로지르는 한국 SF의 아나크로니」, 『인문학연구』 제61호,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4, 334쪽.

아니다. 이러한 분석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보라가 창작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석에 더해, 대중 서사로서의 정보라 소설이 참조·계승하고 있는 다양한 대중문화 장르와 전통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한편 정보라 소설에 나타난 과학연구자의 노동 소외 문제⁵⁾와 계급 문제, 불평등 문제⁶⁾를 다룬 연구도 있다. 이 연구들은 정보라 과학소설의 사회비판적 성격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이성 중심주의와 과학만능주의, 능력주의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서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는 정보라 소설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분석 대상이 과학소설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호러와 환상소설을 포함한 정보라 소설의 전체상을 그려내려면 보다 넓은 시야의 접근이 필요하다. 김윤희·서세림은 정보라 과학소설이 포스트휴먼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비인간 주체와의 관계맺기를 탐구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분석하였다.⁷⁾ 이 역시 정보라 과학소설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잘 드러내는 연구이지만, 테크놀로지적 비인간 주체와의 관계망 구축이라는 주제는 김보영, 김초엽, 천선란, 정세랑, 박해울 등 현대 한국 SF 작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많지 않은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더라도 정보라 소설의 성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각각의 연구들은 나름의 관점—마술적 리얼리

5) 홍덕구, 「한국 현대 SF의 과학자 재현양상: 김초엽, 심너울, 정보라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9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3, 69-103쪽.

6) 왕춘뢰, 「정보라 소설에서 나타난 노동 계급 연구」, 『스토리앤이미지텔링』 제27호,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24, 71-91쪽.

7) 김윤희·서세림, 「정보라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인공지능의 관계 맺기: 「안녕 내 사랑」(2015), 「One More Kiss, Dear」(2016), 「너의 유토피아」(2021)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47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4, 93-127쪽.

즘, 사변소설, 과학소설, 포스트휴먼 담론, 사회비판적 성격 등—에 입각해 정보라 소설의 의미를 추출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장르를 뛰어넘는다’고 언급한 부커상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넘어선 구체적 의미를 생산해 내지 못한다. 『저주토키』를 부커상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기에 그 문학성이 과대 평가된 작품으로 논한 연구⁸⁾는 이러한 혼란을 잘 보여준다.

정보라는 2008년 디지털 작가상을 수상⁹⁾한 이후 웹진과 온라인 문학 플랫폼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동유럽 문학 전공자로서 활발한 연구와 번역 활동을 수행해 오기도 했다. 대중에게 정보라라는 이름이 각인된 것은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 선정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도 꾸준한 창작 활동을 15년 가까이 지속해 온 작가인 것이다. 특히 정보라의 작품 활동이 웹진과 온라인 창작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정보라의 창작 방법론과 정보라 소설의 성격이 제도권 문학보다는 대중문학, 장르문학에 더 가깝게 위치할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정보라 소설, 그중에서도 호러의 문법을 따르는 환상소설들을 장르적·역사적 형성물로 규정하고 문화계보학적 접근을 통해 그 대중문화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단행본 『저주토키』(아작, 2017) 및 ‘정보라 환상문학 단편선’이라는 타이틀로 출간된 단행본 『아무도 모를 것이다』(퍼플레인, 2023)와 『죽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퍼플레인, 2023)를 분석 대상 텍스트로 삼는다.¹⁰⁾ 또한 정보라가 자

8) 이은주, 「문학상이 견인한 새로운 문학의 문학성 연구-정보라 「저주토키」를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제60호, 국제언어문학회, 2025, 135-159쪽.

9) 김윤희·서세립, 앞의 글, 95쪽.

10) 『아무도 모를 것이다』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환상문학웹진 <거울>에 발표된 10편의 단편이 실려 있으며, 『죽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에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거울>과 온라인 문학 플랫폼 ‘브릿G’에 발표된 10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신의 작품에 호러 장르가 미친 영향과 호러적 성격에 대해 직접 쓰고 이야기한 단행본의 저자 후기와 인터뷰 기사들을 한 축에 놓고, 이를 실제 텍스트에 나타난 호러 요소와 비교·대조하며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작가론의 형태를 띠게 될 수도 있지만, 정보라의 작가론을 작성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2. 정보라식 호러의 원형 또는 기원(1): <전설의 고향>과 J-호러

『저주토키』가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오른 직후인 2022년 4월, 한 인터뷰에서 정보라는 호러 장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Q) 호러는 어떤 장르인지?

A) 정보라: 전설의 고향 같은 게 다 호러다. 어느 나라에나 무서운 얘기가 다 있다. 전래동화 보면 귀신 얘기 나오고, 처녀 귀신 얘기 그게 호러다.

Q) <저주토키> 소설 읽으면서 전래동화 읽는 느낌이 들었다.

A) 정보라: 민담, 전설 굉장히 좋아한다. 전설의 고향도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고. 공포 영화, 괴담, 도시 전설이나 그런 무서운 얘기 되게 좋아한다.¹¹⁾

이 인터뷰에서 주목할 점은 정보라가 <전설의 고향>과 귀신이 등장하는 전래동화를 호러 장르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유년 시절에 좋아했

11) 이용기, <부커상 최종 후보 소설가 정보라 작가 인터뷰>, 『뉴스풀』, 2022.05.23., <https://www.newspool.kr/news/articleView.html?idxno=7005>. (검색일: 2026.04.05.)

던 〈전설의 고향〉과 함께 공포 영화, 괴담, 도시 전설과 같은 “무서운 얘기”를 무척 좋아한다고 밝힌 부분이다. 〈전설의 고향〉에 대한 언급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다른 인터뷰¹²⁾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보라의 출생 연도(1976)를 고려할 때, 인터뷰에서 언급된 〈전설의 고향〉은 1977년부터 1989년까지 매주 방영되었던 텔레비전 드라마로 추정된다.¹³⁾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설의 고향〉의 원혼이나 이물(異物)은 인간 세상에서 쫓겨나거나 거부당한, 기존 질서나 사회체제에서 밀려난 존재들이다. 원혼이나 이물들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되고 희생되는 계층으로 표상되며, 이러한 존재들이 귀신으로 귀환하여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행위는 두려움과 불안을 만들어 공포를 주지만 공고한 사회적 체제를 균열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혹적이다.¹⁴⁾ 정보라가 〈전설의 고향〉에 매혹되었던 것 또한 이러한 측면과 관련이 있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저주토키』를 비롯하여 정보라의 초·중기 단편 환상소설을 수록한 『아무도 모를 것이다』와 『죽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에 수록된 작품들 중 상당수가 원혼과 이물이 등장하여 복수하거나 원한을 푸는 이야기

12) “『저주토키』 단편들에 영향을 준 건 (공포 사극) ‘전설의 고향’이다. 추리소설 취향을 가진 외할머니가 ‘전설의 고향’을 꼭 불러서 같이 보셨다. 집에는 동화책이 많았고, 어린 이 삼국유사·삼국사기도 있었다. 삼국사기의 ‘기이편’이 진짜 재미있었는데, 비현실적이면서 무섭기도 하면서 재미있고 신기한 여러 느낌을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덩 덩하게 기술하는 게 좋았다.” 이은정, 〈정보라 작가, “잔혹한 공포, ‘전설의 고향’서 영향받았죠”〉, 『연합뉴스』, 2022.05.13.,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2177300005?input=1195m>. (검색일: 2026.04.05.)

13) 〈전설의 고향〉은 1977년부터 1989년까지 매주 방송되다 종영되었고, 이후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납량특집 시리즈물로 다시 제작되어 총 72편이 방송되었으며, 2008년과 2009년 여름에 각각 8편과 10편의 미니시리즈로 방송되었다. 문선영, 「전설에서 공포로, 한국적 공포물 드라마의 탄생」, 『우리문학연구』 제45호, 우리문화회, 2015, 231쪽.

14) 위의 글, 245쪽.

를 다루고 있다.

〈저주토키〉의 토키 모양 전등은 저주를 위해 만들어진 이물이며, 〈머리〉에서는 변기 속에서 등장하는 배설물로 이루어진 괴물이, 〈차가운 손가락〉에서는 짝사랑하던 남자를 빼앗기고 자살한 여자의 원혼이, 〈뿔〉에서는 황금 피를 흘리는 여우가 등장한다. 또한 〈흉터〉에는 설화나 민담에 등장하는 괴수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괴조가 등장하며, 〈즐거운 나의 집〉에는 낡은 상가주택 자체가 괴물화한 존재가, 〈재회〉에는 2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유령이 된 노인이 등장한다. 이러한 이물, 괴물, 원혼들은 저주를 옮기는 매개물이 되거나(〈저주토키〉), 억울하게 살해당한 뒤 그 원한을 가해자나 제삼자에게 풀어내기도 한다(〈차가운 손가락〉, 〈뿔〉). 또는 인간성과 불화하는 자연 그 자체를 상징하거나(〈흉터〉), J-호러의 장소들처럼 우연히 그곳에 머물게 된 존재에게 공포를 전염시키기도 한다(〈즐거운 나의 집〉).

그런데 정보라가 원한과 복수를 근본적으로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상정하지는 않은 듯하다. 아작 판 『저주토키』의 ‘작가의 말’에서 정보라는 ‘복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주토키〉는 쓸쓸한 이야기들의 모음이다. 출판사에서는 불의가 만연한 지금 같은 시대에 부당한 일을 당한 약한 사람(들)을 위해 복수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서 이 단편집을 내기로 했다는 다분히 진취적인 의견을 준 적이 있다. 감사한 말씀이지만 작품을 쓸 때의 의도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놀랐다.

〈저주토키〉에 실린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모두 외롭다. 세상은 대체로 사납고 낯설고 가끔 매혹적이거나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조차 근본적으로 야만적인 곳이며, 등장인물(혹은 등장토키 혹은 등장로봇)들은 사랑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욕망하고 분

투하고 배신하고 살해하거나 살해당하는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세상과 교류한다.

원래 세상은 쓸쓸한 곳이고 모든 존재는 혼자이며 사필귀정이나 권선징악 혹은 복수는 경우에 따라 반드시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필요한 일을 완수한 뒤에도 세상은 여전히 쓸쓸하고 인간은 여전히 외로우며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방식을 통해서, 낯설고 사나운 세상에서 혼자 제각각 고군분투하는 쓸쓸하고 외로운 독자에게 위안이 되고 싶었다.

그것이 조그만 희망이다.¹⁵⁾

이 <작가의 말>은 정보라에 대한, 또는 정보라 스스로가 만들어 낸 ‘사후적으로’ 구성된 페르소나에 균열을 가한다. 이른바 ‘데모하는 작가’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소외된 존재들을 위해 투쟁하는 작가의 이미지와 그런 작가의 창작물인 사회비판적 소설이 그 페르소나의 정체일 것이다. 즉, 노동 운동가·사회 활동가로서의 정보라¹⁶⁾라는 페르소나가 <저주토끼>를 비롯한 그의 환상소설, 과학소설, 호러 소설들에 덧씌워져 해석의 방향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는 상당 부분 정보라 스스로가 자처한 해석이기도 하다. 뉴스에 나오는 ‘열받는 일들’에서 소설의 영감을 얻는다는 발언¹⁷⁾이나, <한밤의 시간표>(2023) 출간 직후의 인터뷰에서 “사회비판적 호러’로서의 귀신 이야기를 그렸다”¹⁸⁾라고 단언한 것 등이 모두 이러한 해석에 힘을 보탠다. 그러

15) 정보라, <작가의 말>, 『저주토끼』, 아작, 2017.

16) 정보라는 2013년 세월호 농성장에서 서명 운동에 참여했던 경험, 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했던 경험,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 등을 다수의 인터뷰와 기고에서 밝히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용기, 앞의 글 참조.

17) 임지영, <마감과 분노, 정보라의 힘>, 『시사in』 775호, 2022.07.29.

18) 안시욱, <누군가에겐 현실이 귀신이야기보다 무서워요>, 『한국경제신문』, 2023.06.23.,

나 ‘데모하는 작가’라는 페르소나를 소거하고 ‘이야기’로서 『저주토키』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죽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를 살펴보면 계급모순과 착취에 대한 알레고리적 성격이 강한 작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적어도 2017년 시점의 정보라에게 있어서 이야기는 소외는 공산혁명이나 사회변혁 같은 마르크스주의적 해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화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논하는 낙원에서 추방된 주체, 빚금 처진 주체(\$)의 근원적 존재 방식으로서의 소외에 가깝다.¹⁹⁾

이 지점에서 함께 살펴야 할 것이 공포 영화, 괴담, 도시 전설과 같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정보라의 말이다.

정보라: 〈저주토키〉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해주는 얘기처럼 쓰기도 했고, 그리고 일본 괴담처럼 써보고 싶어서 쓴 얘기도 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쓰는 건 아닌데 이 책에는 옛날이야기 분위기가 많은 작품이 있다.²⁰⁾

정보라가 언급한 “일본 괴담”이 정확히 어떤 것을 가리키는 지는 이 인터뷰만으로는 알기 어렵지만, 대중문화적 세대 경험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1990년대 초에 출판되었던 〈공포특급〉 시리즈나 〈특급 공포체험 셋!〉 등의 괴담 서적을 통해 번안된 일본 괴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1990년대 일본 괴담 번안물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 있지 않지만, 이른바 ‘J-호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62303961>. (검색일: 2026.04.05.)

19) 남종석은 정보라 소설의 주인공과 그들의 선택이 마르크스적 주체라기보다 실존적 주체의 선택에 가깝다고 분석하였다. 남종석, 〈『저주토키』 혹은 정보라식 리얼리즘에 관해〉, 『레디앙』, 2023.11.06., <https://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5242>. (검색일: 2026.04.06.)

20) 이용기, 앞의 글.

로 불리는 일본 호러 소설과 호러 영화에 대한 연구들을 참조해 그 성격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다.

이호걸은 1990년대 J-호러에 대해 “두터운 핵가족, 중산층, 고도성장, 경제, 안정적인 대의정치, 복지를 책임지는 큰 국가 등이 중심이었던 전후 사회민주주의적 배치의 해체, 대서사의 붕괴와 원본 없는 복제물(simulacre) 중심의 문화 대두, 그리고 민족, 계급 등 사회적 집단의 해체와 극단적인 개인화 등을 포괄”하는 탈-근대의 상황이 일본인들에게 공포로 다가왔으며 이 공포는 시대적 공포에 다양하게 매개되었다고 분석한다.²¹⁾ 즉, 근대성의 핵심을 구성하는 합리주의, 개발, 성장과 같은 가치들이 버블과 함께 붕괴하며, 지배 질서를 비판하고 성찰하기보단 그 붕괴가 초래한 위기 자체에 압살되어 버린 감정과 감각이 호러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J-호러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2007년부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정보라가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자본주의의 종말론적 극단을 경험한 세계 체제와 그 일부로서의 (한국) 사회를 서사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한편 박인성은 한국 호러의 토대를 형성하는 한국의 사회구조를 ‘소용돌이형’으로, 일본 호러의 토대를 형성하는 일본의 사회구조를 ‘상자형’으로 구분하고, 한국의 호러가 국가 중심의 소용돌이 사회구조에서 탈락하는 것에서 오는 소외와 파편화에서 비롯된 ‘개인주의적 소외 공포’를 다루는 반면, 일본 호러에서는 자신이 위치한 사회 공동체가 상자가 되어서, 그 상자를 벗어날 수 없는 폐쇄공포가 핵심이 된다고 분석하였다.²²⁾ 이러한

21) 이호걸, 「탈-근대의 공포: J-호러의 역사적 함의들」, 『비교문학』 제92호, 한국비교문학회, 2024, 365쪽.

22) 박인성, 「한국-일본 호러 장르 비교 연구-소용돌이형 사회구조와 상자형 사회구조의 도식적 내러티브를 통해」, 『리터러시연구』 제16권 5호, 2025, 931쪽.

맥락에서 보면 정보라 환상소설이 보여주는 공포에는 <전설의 고향> 스타일의 'K-호러'와 J-호러가 혼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호러가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다루는 방식은 모방이나 고발에 국한되지 않는다. 호러는 현실모순을 서사적 자양분으로 삼되, 그것을 거울처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끔찍하게 뒤틀린 형태로 표출한다. 적어도 <저주토키> 시점까지의 정보라는 이러한 점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창작에서도 실천하려 애썼던 듯하다.

Q) '소설 쓰고 번역하고 데모를 한다'고 자기 소개를 해왔다. 각각을 분리하기 위해 애썼다고 했는데.

A) 정보라: 오랫동안 세월호 시위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소설로 써서 팔아먹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현실이 소설을 너무 뒤덮어버리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 재밌는 부분, 음습하고 끔찍하고 간결한 어떤 걸 원하는데 현실이 소설을 뒤엎으면 그렇게 되기 어렵다. 1980년대식 노동소설을 쓰고 싶지는 않다.²³⁾

정보라가 쓰고자 했던 것이 '음습하고 끔찍하고 간결한 어떤 것'임이 이 인터뷰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공포를 공포 그 자체로 즐기는 현대 호러 장르의 핵심이기도 하다. 아작 출판사가 <저주토키>를 '복수'라는 키워드로 의미화해 마케팅했을 때 정보라가 드러낸 당혹감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나는 대부분의 경우 비유나 알레고리를 의도하고 작품을 쓰지 않는다. 작품 속에서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허구의 작품 속에서는 정말로 비현실적인 일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소설 속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창작자로서의

23) 임지영, 앞의 글.

24) 정보라, <작가의 말>, 『아무도 모를 것이다』, 퍼플레인, 2023, 422쪽.

정보라는 ‘전설의 고향’과 ‘일본 괴담’으로 대표되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쓰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정보라의 시대는 ‘전설의 고향’이 방영되었던 1970~80년대 한국 사회와도, J-호러가 위치하는 버블 붕괴 직후의 일본 사회와도 다르다. 따라서 정보라 호러에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현상과 분위기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쓰레기만두 파동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저주토키>를 쓰게 되었다는 발언²⁵⁾이 이를 잘 보여준다. 다만 그것이 ‘1980년대 노동소설’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 또한 분명하다. 복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영원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쓸쓸하고 인간은 여전히 외로운 존재라는 것이 ‘작가의 말’과 여러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정보라의 생각이다.

이원진은 티모시 모튼의 ‘실재의 인과성’ 논의를 경유해, 토끼 모양 램프를 저주의 매개로 삼아 세대에 걸친 원격작용을 통해 악인을 응징하는 「저주토키」의 복수 방식에 대해 “원혼을 가진 이들이 기득권자의 거대 논리를 이기지 못했을 때 평민들이 훨씬 더 신뢰하는 것은 마술적 인과성”²⁶⁾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는 소설집 『저주토키』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해석은 아니지만, 정보라 호러 소설이 현실모순과 부조리에 서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정보라는 <전설의 고향>으로 표상되는, 한국 전통 괴담의 해원(解怨) 서사와 버블 붕괴 이후의 아노미 상태를 재현하는 J-호러를 수용하여 억압된 자들의 원한을 공포와 복수라는 코드로 풀어내되, 복수의 달성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변화되거나

25) 이용기, 앞의 글.

26) 이원진, 「소설 「저주토키」와 드라마 <악귀>에 나타난 마술적 실재론-‘샤먼의 저주’라는 원격작용을 통한 실재의 새로운 인과성」, 『영상문화』 제43호, 한국영상문화학회, 2023, 96쪽.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계를 묘사한다. 이는 정보라 호러가 복수나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효용적 글쓰기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소외와 공포라는 토대 위에서 언제든지 되살아나는 종류의 이야기임을 말해준다. 이는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로 굳이 나눌 필요조차 없는, 이야기의 본령 중 하나이다.

3. 정보라 호러의 원형 또는 기원(2): 슬라브 동화·민담과 동유럽 근현대사의 비극

정보라 소설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참조점은 그가 창작자인 동시에 동유럽 문학 연구자·번역가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약력을 살펴보면 정보라는 연세대 인문학부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러시아 동유럽 지역학 석사를, 인디애나대에서 슬라브 문학 박사를 취득했다.²⁷⁾ 『저주토키』에 수록된 단편 중 일부 또는 상당수는 그의 해외 유학 시절에 쓰였다.²⁸⁾

정보라는 한 인터뷰에서 2003년에 폴란드 작가 브루노 슐츠 작품 2권을 번역 출간한 것을 자신의 작품 활동 시작점으로 꼽으며, 동유럽 문학이 창작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1996년에 대학에 들어왔다. 소련이 망했으니 러시아가 개방될 거란 기대 속에서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가 있었는데 내가 끝물이었다. 러시

27) 『저주토키』(아작, 2017) 속표지의 '작가 소개' 중에서.

28) “정보라: 특히 〈저주토키〉 표제작은 쓰레기만두 파동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쓰게 된 거다. 그 피해자분(사장)한테 너무 부당한 일이었지 않나. 제가 그 당시에는 유학가 있어서 한국 신문기사에서 보기는 했는데 당연히 피해자 쪽에서 뭔가 잘못하신 줄 알았다.” 이용기, 앞의 글.

아, 폴란드 중세 문학의 상상력은 한국식 그것과 굉장히 다르고 그런 점이 재밌었다. 그런 상상력의 전개에서 배운 것들이 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역사서인데 도저히 일어났을 것 같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처럼 덤덤하게 서술한다. 러시아 연대기를 예로 들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러시아말로)에 가뭄이 들었는데 어떤 마법사가 나타나 여자들이 식량을 숨기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까지는 믿을 수 있는 얘기인데 여자들 등을 벗기니까 그 안에서 곡식과 풀이 나왔다는 거다. 남자들이 자기 아내·누나·여동생을 데리고 가서 식량을 끄집어냈다. 여자들 다 죽게 생기니까 왕이 마법사를 쫓아내고 수도승이 기도를 해 악한 기운을 깬다. 교훈은 정교를 믿지 않고 마법에 홀리면 가족을 죽이게 된다는 것, 즉 이교도를 믿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다.²⁹⁾ (강조는 인용자)

이때 정보라가 말한 ‘교훈’이란 물론 시니컬한 농담일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폴란드 중세 문학의 상상력이 한국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며, 그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는 진술이다. “도저히 일어났을 것 같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처럼 덤덤하게 서술”하는 중세 동유럽 문학의 특징은 정보라 소설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머리〉에서 변기 속에서 사람 머리처럼 보이는 괴물이 나타났을 때, 여자는 놀라거나 비명을 지르는 대신 “너는 무엇이야?”³⁰⁾라고 침착하게 묻는다. 〈몸하다〉에서는 여성이 단성 수태를 한 뒤 아빠가 되어 줄 남성을 찾는다는 설정을 의사의 입을 빌려 ‘과학적’인 사실처럼 서술³¹⁾한다. 〈사흘〉(『죽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29) 임지영, 앞의 글.

30) 정보라, 〈머리〉, 『저주토키』, 아작, 2017, 38쪽.

31)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임신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남성 배우자가 없으면 태아가 제대로 분열하고 발육하질 못해요. 달걀에도 무정란이랑 유정란 있는 거 아시죠? 같은 이치예요. 태아가 제대로 발육을 못 하면 임신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산모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요. 아시겠어요?” 정보라, 〈몸하다〉, 위의 책, 89쪽.

에서는 마약 중독자였던 엄마의 혼령이 마약을 찾아 관에서 나오는 이야기
기를 다루고, <죽은 팔>(『죽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에서는 집주인의 팔
하나가 셋집 천장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심상하게 묘사³²⁾한다. 이 작품들
은 공통적으로 ‘괴기 현상’, ‘심령 현상’이라고 해야 할 만한 사건들을 마치
자연주의적 사실인 것처럼 담담하게 서술한다. 즉 정보라 소설에서는 자
연과학 법칙으로 설명되는 ‘실제’와 귀신, 괴물, 이물들이 활보하는 ‘환상’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사 공간의 차원에서도 동유럽 문학의 상상력은 정보라 소설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저주토키』에 수록된 <뿔>, <흉터>, <바람과 모래의 지
배자>, 『아무도 모를 것이다』에 수록된 <나무>, <산>, <완전한 행복> 같은
작품들은 중세 동유럽 또는 지중해 세계 어딘가를 연상시키는 서사 공간
을 배경으로 전설이나 민담을 연상시키는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그는 친구의 목이 말하는 도중에 뻗뻗하고 거칠거칠하게 굳어져 나무줄
기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친구가 비명을 지를 듯이 입을 크게 벌렸지만 이
미 늦었다. 땅속에 가슴까지 파묻힌 불구의 소년은 소리 없는 비명과 절박
한 공포를 열린 입과 크게 뜬 눈에 담은 채 그대로 나무둥치로 변해버렸
다.³³⁾

이 작품, <나무>에서 여행자에게 장난을 치다 붙잡혀 땅속에 가슴까지
파묻힌 소년은 나무로 변한다. 나무가 된 소년은 친구에게 살아 있는 것들

32) “거실의 식탁 위쪽에는 이사 오기 전까지는 없었던 ‘팔’이 벽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말
랐지만 제법 근육질에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단단해 보이는, 남자의 오른팔이다.” 정보
라, <죽은 팔>, 『죽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퍼플레인, 2023, 279쪽.

33) 정보라, <나무>, 『아무도 모를 것이다』, 퍼플레인, 2023, 21쪽. (2013년 환상문학웹
진 <거울> 게재)

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고, 작은 동물 따위를 가져다 주면 그것을 흡수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런데 이 작품의 공포는 소년이 나무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도, 그 나무가 살아 있는 것들을 흡수해 꽃을 피우는 괴물이라는 사실도 아니다. 결말에서 나무는 자신을 파묻었던 여행자의 딸을 산 채로 흡수하며 복수를 달성하지만, 여행자가 붙인 불로 나무 또한 불타 사라진다. 여행자의 딸과 사랑에 빠졌던 소년의 친구는 이 모든 후회와 죄책감과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된다. 이 지점에서 독자는 서술자이자 목격자, 그리고 생존자인 소년의 친구에게 공감할 수밖에 없다. 인생이란 원래 기구하고 기괴한 것이고, 고통과 끔찍함은 예기치 않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우리는 그 기억들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이 작품이 제시하는 진짜 공포인 셈이다. 이는 <저주토끼>에서 저주를 악용한 대가로 죽지 못하는 죽음을 살게 된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나 들어주어야만 하는 손자 '나'의 이야기와도 맥이 닿는다. 즉, 정보라는 복수라는 코드를 서사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적극 활용하지만, 복수 그 자체를 예찬하거나 독자에게 응징과 징벌의 쾌감을 제공하는 것에서 만족하지는 않는다.

나는 옛날얘기나 동화를 좋아한다. 옛날얘기나 동화에서는 비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동화나 민담 장르에서는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옛날얘기를 좋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국에서 옛날얘기나 동화의 경우 대부분 끝에 어떤 교훈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이야기 끝에는 현실적인 교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이야기를 처음 듣고 읽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나의 이야기에는 교훈이 없다. 나는 독자에게 교훈 같은 걸 줄 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³⁴⁾

정보라는 ‘대부분 끝에 어떤 교훈이 있는’ 한국의 옛날애기와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며, 교훈으로 봉합하지 않은 채 끝나는 동화와 민담을 명확히 구분한다. 이때 정보라가 염두에 두고 있는 동화와 민담이란 그가 연구와 번역 활동의 대상으로 삼았던 중세 동유럽 문학일 것이다. 정보라는 러시아 ‘코시체이’ 민담을 한국 민담과 비교한 논문³⁴⁾에서 한국 민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형의 서사 공간과 대적자 캐릭터가 러시아 민담에 존재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동유럽 민담과 동화에 대한 지식은 정보라 소설의 한 축을 형성한다.

동화나 민담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동유럽을 공간 배경으로 삼는 작품들도 있다. <재회>(『저주토키』), <Nessun sapra>, <완전한 행복>(『아무도 모를 것이다』)이 대표적이다. 그중에서도 <완전한 행복>은 인간에게 결코 정복된 적 없는 자연이라는 코드를 통해 공포를 만들어 내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그들은 눈 덮인 숲의 나무를 쓰러뜨려 통나무집을 만들었다. 봄이 오기를 기다려서 아직도 얼어붙은 땅을 깨뜨리고 씨앗 심을 곳을 찾았다. 돌맹이를 수없이 부딪쳐 불꽃을 만들고 강철처럼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변한 땅을 파헤치느라 모두 손끝이 너털너털하게 피투성이가 되고 손톱이 닳아 빠졌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고, 추워서 배가 고팠다. 쥐어짜는 듯한 배고픔은 몸속에서 추위와 함께 곧 얼어붙어 무감각해졌고, 무감각은 무기력으로 이어졌다. 그런 무감각에 속지 않고 풀뿌리라도 파내서 입에 넣을 의지가 남아 있는 자만 살아남았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대로 죽어서 얼음 속에 묻히거나 때로 숨이 붙은 채로 늑대에게 뜯어 먹혔다. 그곳은 세상

34) 정보라, <작가의 말>, 『아무도 모를 것이다』, 퍼플레인, 2023, 422-423쪽.

35) 정보라, 「너의 죽음은 어디에 있는가: 러시아 민담과 한국 민담에 나타난 이계와 괴물의 형상 비교」, 『슬라브학보』 제33권 4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18, 245-280쪽.

의 끝이었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³⁶⁾

소년의 아버지는 황제의 장교였다. 황제를 참칭한 반란군이 소년의 가족을 사로잡고 아버지를 죽인다. 반란이 진압된 후, 남은 가족들은 반란군을 먹이고 재웠다는 죄로 동쪽 끝 유형지로 보내진다. 동시베리아를 연상시키는 유형지에서 그들은 가혹한 자연환경과 마주한다. 생존 그 자체가 당면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각은 한국 대중문화 전통에서는 대단히 드문 것이며, 미개척의 광대한 토지를 배경으로 삼는 슬라브 문학의 감각에 가깝다.

군인들에게 강간당한 소년의 누나는 “내가 용서했듯이……너도 용서하고, 용서받아라”³⁷⁾라는 말을 남기고 죽는다. 누나를 강간한 군인을 죽인 소년은 유형지를 탈출해 방랑하며 청년이 되고, 아버지를 죽인 참칭자를 만나 그를 살해하게 된다. 이 살해는 가족을 위한 복수임과 동시에, “선도 자비도 용서도 없는” 자신의 세상을 완성하기 위한 행위이기도 했다. 소년의 복수는 황제를 향하지 않는다. 이는 정보라 소설에서 복수가 체제를 전복하고 재구축하는 전가의 보도가 아님을 재확인시킨다.

〈Nessun sopra〉는 정보라 환상소설 중에서도 독특한 작품이다.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린 이 작품은 ‘조국수호전쟁’ 60주년을 맞아 러시아 방송국이 전쟁 중 수용소에서 사망한 전설의 작가 다닐 바실리에비치 이바췌프³⁸⁾의 최후를 목격한 생존자를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그 목격자는 이바췌프가 수용되었던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류보프 아르카디예브나 라이스카야였다. 류보프는 공산주의 정신을 교란하

36) 정보라, 〈완전한 행복〉, 『아무도 모를 것이다』, 퍼플레인, 2023, 398쪽.

37) 위의 글, 404쪽.

38) 몇몇 실존 작가들의 일화를 결합해 정보라가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

는 작품을 썼다는 죄로 수용소에 수감된 이바쵸프를 사랑하게 되고, 전쟁이 격화되며 물자가 바닥난 수용소는 차가운 지옥으로 변한다. 류보프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바쵸프의 시체를 먹으며 살아남았고, 전쟁 이후에도 이바쵸프의 영혼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

그 형체는 사람일 수 없었다. 사람이기에는 신체 비율이 너무 이상했다. 휠체어 뒤에서, 앉아 있는 사람의 한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어깨에 얹었다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형체는 그런 상태로 아무렇지 않게 류보프 아르카디예브나의 휠체어 뒤에 서서 그녀의 머리 위로 목만 내민 채 우리를 보고 있었다.³⁹⁾

그런데 이 작품은 식인과 유령이 등장하는 기괴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여자는 죽은 남자를 먹었고, 죽은 남자는 여자를 잡아먹었고, 그 인터뷰는 우리 시간과 돈과 특집을 잡아먹었군”⁴⁰⁾이라는 대사가 함축적으로 보여주듯, 이바쵸프는 연인을 소련 당국의 탄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사랑의 의미를 담은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으려 했지만, 류보프는 이바쵸프의 시체를 먹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둘만의 감옥에 평생 갇히게 된다. 억압적 체제와 대결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는 전쟁과 분단, 군사독재와 매카시즘을 경험한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것이다.

〈재회〉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에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목격한 유령 이야기를 다룬다. 그런데 그 유령은 끔찍하게 뒤틀리거나 손상된 모습이 아니라 생전의 모습 그대로 한낮에 나타난다.

39) 정보라, 〈Nessun sapra〉, 『아무도 모를 것이다』, 퍼플레인, 2023, 374쪽.

40) 위의 글, 380쪽.

“그때 그 광장에서 한 방향으로 걸어가던 나이 든 신사분은 누구야?”

“전쟁 때 광장에서 총을 맞은 사람일 거야”

그가 말했다.

“거기서 자주 봤어. 길을 건너서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길에서 죽었을 거야.”

“어째서 그런 불행한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⁴¹⁾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던 바르샤바 광장에는 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자들이 유령이 되어 배회하고 있다. 그런데 이 ‘유령’은 비단 죽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인 유학생 ‘나’의 연인이 된 폴란드인은 나치 독일 강제수용소 생존자인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강박적으로 생존과 도피를 준비하는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결박에 대한 페티시를 갖게 되었다. 밧줄로 강하게 묶이면 “살아 있다고 허락받은 것 같아서”⁴²⁾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정은 전쟁이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인 유학생 ‘나’에게도 사연이 있다. 어머니가 ‘나’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큰 빚을 졌고, 그것을 갚느라 결혼하지 않은 채 나이만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혈연과 가족주의라는 한국적 인습에 강하게 속박된 ‘나’와 2차 대전의 트라우마에 속박된 폴란드인의 이야기가 성애라는 형태로 교차하며 정보라 소설의 독특한 서사 공간이 구성된다. 지금-여기의 한국 사회를 겪어내고 있는 ‘나’의 이야기와 2차 대전 피해국인 폴란드 전후 사회를 살아가는 한 폴란드인의 이야기가 유령이 귀환하는 이야기를 통해 결합함으로써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방식을 통해서, 낯설고 사나운 세상에서 혼자

41) 정보라, 〈재회〉, 『저주토끼』, 아작, 2017, 312쪽.

42) 위의 글, 314쪽.

제각각 고군분투하는 쓸쓸하고 외로운 독자에게 위안이 되고 싶었다”⁴³⁾는 작가의 바람이 형상화된다. 중세 동유럽 동화·민담과 동유럽 지역의 근현대사가 현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교차하며 형성된 이 낯설고 독특한 서사 공간은 정보라 소설을 동시대 한국 사변 소설과 구별짓는 핵심 요소이자 미덕이기도 하다.

4. 낯설게/무섭게 함으로써 무섭게/낯설게 하기

정보라 소설에는 여성 주인공이 자주 등장하며, 주제적으로도 남성 서사를 비틀거나 전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 이후의 한국 사변소설(SF) 신(scene)을 대표하는 김초엽, 정세랑, 천선란 등과는 달리 정보라와 페미니즘을 연결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정보라 소설이 보여주는 느낌(tone)과 태도(manner)가 동시대 페미니즘 문학의 주류와 구별되기 때문일 것이다. 흥미롭게도 정보라는 자기 소설의 페미니즘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며 스티븐 킹을 언급한다.

Q) 복수 코드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불의하고 폭력적인 세상에 대한 비판인가.

A) 정보라: 약자의 편은 맞는데, 현실 호러가 벌어지니 마음 편하게 대박 무서운 얘기를 쓰고 싶었을 뿐이다. 스티븐 킹 소설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는 초기작에서 청소년, 임신한 여성 등 약자나 취약한 주인공을 내세운 호러를 정말 잘 썼다. 주인공이 성인 남성이라면 무섭지 않을 이야기가 임신한 여성이어서 무서워지는 상황들이 있다. 약자가 위협받게 되면 얼마나 무

43) 정보라, <작가의 말>, 『저주토키』, 아작, 2017, 326쪽.

서워지는지를 읽으면서 많이 배웠다.⁴⁴⁾

스티븐 킹의 호러 소설들, 이를테면 〈샤이닝〉과 같은 작품은 미국 자본주의 사회의 젠더 정치적 무의식을 고딕소설적 공간으로 구조화하여 보여줌과 동시에 이를 교란한다. 〈샤이닝〉에서 웬디가 주로 위치하는 주방과 책이 위치하는 서재는 여성의 영역인 사적 공간과 남성의 영역인 공적 공간의 단절을 암시한다. 그리고 오버홀 호텔이 겨울을 맞아 운영을 중단한 동안, 즉 자본주의 질서가 잠시 정지된 동안 책의 가부장적 폭력성은 평소라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내와 아이를 향한다.⁴⁵⁾ 스티븐 킹의 호러 소설은 영미 고딕소설의 서사 공간을 비틀고 그곳에 가부장 남성과 상대적 약자인 (임신한) 여성과 청소년, 아이를 함께 배치하여 독특한 방식의 공포를 만들어 낸다. 이처럼 공포스럽거나 당혹스러운 상황에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을 던져 놓는 방식은 정보라 또한 즐겨 쓰는 서사 전략이다.

〈몸하다〉(『저주토키』)에서는 상대 남성 없이 임신이 이루어지고, 출산 전에 아버지가 될 남성을 찾아야만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독특한 설정을 다룬다. 이는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여성이 감당하는 막중한 생물학적, 사회적 책임과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남성의 책임을 떠올리게 만든다. 〈죽은 팔〉(『죽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에서는 전업주부인 여성에게만 보이는 ‘죽은 팔’의 존재를 통해 여성이 전담하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과중함을 다루기도 한다. 〈즐거운 나의 집〉(『저주토키』)에서도 남편의 빛과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괴기 현상까지를 감당하는 것은 여성인 ‘나’의 몫이다. 〈여자들의 왕〉(2022) 출간 직후 가진 인터뷰에

44) 이은정, 앞의 글.

45) 김나영, 「고딕공간의 이중성과 가족의 와해: 셸리 잭슨의 『힐 하우스의 유령』과 스티븐 킹의 『샤이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논문, 2016, 80-83쪽 참조.

서 정보라는 “농염하고 화끈한 여자들의 관능적 권력 투쟁을 써 보고 싶었다”며 비틀기와 전복을 통해 “여자들도 상상의 주인공이자 중심이 될 권리가 있다”고 밝혔으며,⁴⁶⁾ 〈한밤의 시간표〉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를 입고 장애인이 된 노동자, 성적으로 이용당하는 여성, 성 소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의 한(恨)서린 사연이 이야기를 끌고 나간다”⁴⁷⁾고 밝히기도 했다.

단, 정보라 환상소설은 마거릿 애트우드나 옥타비아 버틀러, 어슐러 르권이 보여준 것처럼 생물학적 성별과 젠더 규범 자체를 전복시킨 사변적 세계관을 창조하기보단, 위험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에 여성 인물을 위치시키고 그로부터 공포를 만들어 내는 것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야만적이고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생각, 그리고 소설이 반드시 교훈을 이끌어 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과도 연결된다.

Q) 왜 오랜 시간 ‘고통’이란 주제에 관심을 보였나?

A) 정보라: 삶이 고통의 바다라서 그렇다. 내가 전공한 러시아 혁명기 유포피아 소설은 대부분 고통에서 시작한다.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혁명을 통해 유포피아를 만들자는 이야기다. 그게 와 닿았다. 고통은 남이 대신 겪어줄 수도 없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도 없으니 남한테 전달할 수 없다. ‘고통은 쾌락의 반대말인가. 그러면 고통이 없는 상태가 쾌락인가. 고통도 쾌락도 없는 상태는 무엇이나’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⁴⁸⁾

46) 윤수경, <갑잡이 공주, 사방을 휘젓다... 부커상 후보의 ‘동화 비틀기’>, 『서울신문』, 2022.07.0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01017009&wlog_tag3=naver. (검색일: 2026.04.07.)

47) 안시욱, 앞의 글.

48) <<인터뷰> 닿을 수 없는 고통을 SF에 담는 ‘미미한 작가’ - 정보라 작가>, 『참여사회』 2023년 11월호.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950212>. (검색일: 2026.04.03.)

이 지점에서 활동가이자 창작자로서 정보라의 독특한 윤리적 태도가 잘 드러난다. 세월호 농성장, 전국장애인연합회 시위 현장, 비정규교수노조 투쟁 현장 등 사회적 약자가 국가, 자본, 체제와 대립하는 현장에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소설에서는 소외와 고통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에피파니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작가-됨과 글-쓰기를 애써 특권화하지 않는 태도이기도 하다. 정보라는 <저주토키>에서 자신이 행했듯 약자의 피해에 대해 소설로 응징하는 것이 “비겁하다”고 말한다.⁴⁹⁾ 문학적/문화적 형식을 통해 체제를 비판하고, 계급모순과 사회구조를 꾸짖고, 상상적 대안이나 해방구를 만들어 내는 것만으로는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정보라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그런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미학적·윤리적 효과가 있다. “용서와 화합이라는 뜻뜻미지근한 결말로 내몰려는 압박에, 정보라는 타협하지 않는다. 웃음기 없이 비정하게, 추악하고 끔찍한 세계를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마주 본 다음 본 대로만 쓴다. 정보라의 소설에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구원받지 않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주 보기 드문 종류의 만족감이 솟아오르는 것이다”라는, 아작 판 『저주토키』 뒷표지에 실린 정세라의 표사(表辭)가 그 위로의 정체를 잘 보여준다. 애써 교훈을 주려 하지도, 관용이나 인류애를 너무 쉽게 발휘하지도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만족감이 있는 것이다.

정보라는 예술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 달리 ‘구부러져 있다’는 러시아 구조주의자 빅토르 시클롭스키의 말을 인용해 “낮설고 기괴한 세상을 새삼 천천히 되돌아보기 위해서는 낮설고 기이하게 구부러진 언어가 필요하

49) 이용기, 앞의 글.

다”⁵⁰⁾라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전설의 고향’과 일본 괴담, 동유럽 문학과 스티븐 킹을 전유해 구성된 ‘정보라식 호러’의 성격과 목적을 말해준다. 공포를 공포 자체로 즐기는 현대 호러 장르의 특징을 존중하면서도, 그 공포의 터널을 지나온 독자가 익숙했던 세상을 낯설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에게는 이 낯선 세상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아무튼 데모’에 참여해 볼 생각이 들 지도 모른다.

정보라 소설의 독자 중에서 공포를 공포 자체로 향유하길 원하는 이른바 ‘정통 호러’ 마니아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저주토끼>로 대표되는 ‘사회비판적 호러’ 작가라는 이미지가 대중에게 강하게 각인되었고, 실제로 2022년 이후(<여자들의 왕>과 <한밤의 시간표>를 기점으로) 정보라가 발표한 소설들은 호러 코드를 전유하면서도 사회비판적 메시지를 강하게 의식한다. 그럼에도 정보라 호러가 제공하는 공포가 독자들에게 특수한 종류의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호러가 인접 장르와 착종되어 재생산됨으로써 생명력을 획득하는 하나의 방식을 보여준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정보라의 초기, 중기 환상소설 중에서 호러의 문법을 취하고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문화계보학적 방법을 통해 그 대중 서사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1장에서는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로 『저주토끼』가

50) 정보라, <작가의 말-낯설게 보는 세상>, 『죽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퍼플레인, 2023, 415쪽.

선정되었을 때 심사위원회가 밝힌 ‘마술적 리얼리즘과 호러, 과학소설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가’라는 정보라에 대한 규정이 이후의 연구 경향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보라 소설을 문화계보학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전설의 고향〉으로 대표되는 K-호러와 ‘일본 괴담’으로 지칭되는 J-호러의 장르적 문법들이 정보라 호러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살폈다. 3장에서는 동유럽 문학 연구자이자 번역가이기도 한 정보라의 이력에 주목하여, 슬라브 동화·민담과 동유럽 근현대사의 비극적 사건들이 정보라 소설에서 소외와 공포의 양식으로 전유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정보라가 스스로 호러의 창작적 원천이라고 밝힌 스티븐 킹과 빅토르 시클롭스키를 전유하여 정보라 호러가 무엇을 ‘낚설게’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공포들을 만들어 내는지를 살폈다.

정보라는 2026년 현재, 한국 문학/문화 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창작자이다. ‘사회비판적 호러’라든가 ‘데모하는 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듯 정보라 소설은 사회비판과 변혁이라는 목적성을 띤 효용적 양식으로 흔히 이해/오해된다. 그러나 2007년 데뷔 이후 〈환상문학웹진 겨울〉을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해 온 정보라의 초·중기 작품들을 살펴보면, 정보라 소설의 시작은 무서운 이야기, 기괴한 이야기가 주는 쾌(快)에 대한 매혹 그 자체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상당한 다작(多作)을 하는 작가이기도 하므로, 정보라 소설이 호러를 다루는 방식은 이후로도 계속 변화해 갈 것이다.

문화, 특히 대중문화는 특정한 목적성에 함몰되는 순간 대중의 관심과 애정을 상실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부커상이나 전미비평가상 최종후보에 올라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반복되면서, 정보라 소설에 대한 비평적 의구심이 생겨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에 대한 평가는 텍스트의 내부와 외부를 총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

역시 정보라 호러 소설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동시대적 문화현상이자 다양한 계보의 대중문화가 결합된 양식으로서 정보라 소설에 접근하는 더 다양한 연구와 비평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정보라, 『저주토끼』, 아작, 2017.
_____, 『아무도 모를 것이다』, 퍼플레인, 2023.
_____, 『죽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퍼플레인, 2023.

2. 논문과 단행본

- 김나영, 「고딕공간의 이중성과 가족의 와해 : 셸리 잭슨의 『힐 하우스의 유령』과 스티븐 킹의 『사이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논문, 2016.
- 김윤희·서세림, 「정보라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인공지능의 관계 맺기: 「안녕 내 사랑」(2015), 「One More Kiss, Dear」(2016), 「너의 유토피아」(2021)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47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4, 93-127쪽.
- 문선영, 「전설에서 공포로, 한국적 공포물 드라마의 탄생」, 『우리문학연구』 제45호, 우리문학회, 2015, 229-259쪽.
- 박선주, 「상상력의 폐기: 미술적/리얼리즘의 계보와 캐런 테이 아마시타의 『오렌지 북회귀선』」, 『비교문학연구』 제42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 285-311쪽.
- 박인성, 「한국-일본 호러 장르 비교 연구-소용돌이형 사회구조와 상자형 사회구조의 도식적 내러티브를 통해」, 『리터러시연구』 제16권 5호,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25, 927-963쪽.
- 왕춘뢰, 「정보라 소설에서 나타난 노동 계급 연구」, 『스토리앤이미지텔링』 제27호,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 연구소, 2024, 77-91쪽.
- 윤장실·김용규, 「세계문학의 다른 시간성을 찾아서-유럽중심적 시간성을 가로지르는 한국 SF의 아나크로니」, 『인문학연구』 제61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4, 333-366쪽.
- 이원진, 「소설 『저주토끼』와 드라마 〈악귀〉에 나타난 미술적 실재론-‘사면의 저주’라

는 원격작용을 통한 실제의 새로운 인과성, 『영상문화』 제43호, 한국영상문화학회, 2023, 93-123쪽.

이은주, 「문학상이 견인한 새로운 문학의 문학성 연구-정보라 「저주토키」를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제60호, 국제언어문학회, 2025, 135-159쪽.

이호철, 「탈-근대의 공포: 'J-호러'의 역사적 함의들」, 『비교문학』 제92호, 한국비교문학회, 2024, 363-394쪽.

정보라, 「너의 죽음은 어디에 있는가: 러시아 민담과 한국 민담에 나타난 이계와 괴물의 형상 비교」, 『슬라브학보』 제33권 4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18, 245-280쪽.

홍덕구, 「한국 현대 SF의 과학자 재현양상: 김초엽, 심너울, 정보라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9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3, 69-103쪽.

3. 기타자료

〈(인터뷰) 닿을 수 없는 고통을 SF에 담은 '미미한 작가' - 정보라 작가〉, 『참여사회』 2023년 11월호.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950212>.

남종석, 〈『저주토키』 혹은 정보라식 리얼리즘에 관해〉, 『레디앙』, 2023.11.06., <https://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5242>. (검색일: 2026.04.06.)

안시욱, 〈누군가에겐 현실이 귀신이야기보다 무서워요〉, 『한국경제신문』, 2023.06.2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62303961>. (검색일: 2026.04.05.)

윤수경, 〈칼잡이 공주, 사방을 휘젓다... 부커상 후보의 '동화 비틀기'〉, 『서울신문』, 2022.07.0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01017009&wlog_tag3=naver. (검색일: 2026.04.07.)

이용기, 〈부커상 최종 후보 소설가 정보라 작가 인터뷰〉, 『뉴스풀』, 2022.05.23., <https://www.newspool.kr/news/articleView.html?idxno=7005>. (검색일: 2026.04.05.)

이은정, 〈정보라 작가, "잔혹한 공포, '전설의 고향'서 영향받았죠"〉, 『연합뉴스』, 2022.05.13.,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2177300005?inpu>

44 대중서사연구 제32권 2호

t=1195m. (검색일: 2026.04.05.)

임지영, <마감과 분노, 정보라의 힘>, 『시사in』 775호, 2022.07.29.

Abstract

A Genealogical Reconstruction of Jung Bo-ra's Horror Novels - Focusing on *Cursed Bunny*, *No One Will Know*, and *Death Is Always With You*

Hong, Duck-Gu(Kun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opular narrative significance of works from Jung Bo-ra's early and mid-career fantasy fiction that employ the conventions of horror, using a cultural genealogical approach.

Chapter 1 critically examines the impact that the judging panel's description of Jung Bo-ra—as “an author who traverses the boundaries of magical realism, horror, and science fiction”—made when *Cursed Bunny* was shortlisted for the 2022 Booker International Prize, on subsequent research trends, and presents the rationale for analyzing Jung Bo-ra's novels through a cultural genealogical lens. Chapter 2 examined how the genre conventions of K-horror, epitomized by *Home of the Legends*, and J-horror, referred to as Japanese ghost stories, form the foundation of Jung Bo-ra's horror. Chapter 3 focuses on Jung Bo-ra's background as a scholar of Eastern European literature and translator, analyzing how Slavic fairy tales and folk tales, as well as the tragic events of modern and contemporary Eastern European history, are appropriated in her novels as forms of alienation and horror. Chapter 4 examines how Jung Bo-ra appropriates Stephen King and Viktor Shklovsky—whom she herself has identified as creative sources of her horror—to explore what Jung Bo-ra's horror ‘defamiliarizes’ and what kinds of fears it generates through this process.

As of 2026, Jung Bo-ra occupies a unique position within the Korean literary and cultural landscape. Much like the labels ‘socially critical horror’ or ‘the protesting writer’ that follow her, Jung Bo-ra's novels are often understood—or

misunderstood—as a utilitarian form driven by the objectives of social criticism and transformation. However, a review of Jung Bo-ra’s early and mid-career works—produced primarily for the online literary magazine *Mirror* since her debut in 2007—reveals that the origins of her fiction lie in a fascination with the sheer pleasure derived from scary and bizarre stories. The fact that the horror provided by Jung Bo-ra’s work can offer readers a unique kind of satisfaction demonstrates one way in which horror today gains vitality by intertwining with adjacent genres and being reproduced.

(Keywords: Jung Bo-ra, *Cursed Bunny*, *No One Will Know*, *Death Is Always With You*, Horror fiction, Magical Realism)

논문투고일 : 2026년 5월 10일

심사완료일 : 2026년 6월 11일

수정완료일 : 2026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6년 6월 15일